

일주문



법상종 12대 총무원장에 법상종 총무원 부원장 해월 스님(안성 쌍미특사 주지)은 8월 1일 제12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05년 10월까지.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 3개국 순례 대각종 총무원장 만형 스님은 8월 12일까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남방 불교 3개국 성지순례 및 연수차 6일 출국했다.



故 김순덕 할머니 추모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 원장 원형 스님은 8월 15일 역사관 개관 6주년 기념식 및 故 김순덕 할머니 추모제를 봉행한다. (031)768-0064



미얀마 친선대사에 위촉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7월 27일 한국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내원 대사로부터 미얀마정부차 수여하는 친선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불교기독교교육 수강생 모집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8월 31일까지 불자예절 및 불교기초교리 등의 제2기 불교기독교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043)256-6254



세계연꽃축제 개최 안동 덕왕사 주지 용각 스님은 8월 30일까지 덕왕사에서 연꽃사진전시회, 국악한마당 등의 '제1회 세계연꽃축제'를 개최한다. (054)853-3855



'달굴 자원봉사학교' 개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만 스님은 8월 11~13일 3세대 통합 자원봉사 프로그램 '달굴 자원봉사학교' 행사를 개최한다. (02)739-9501-3



美 로메리카 불교대서 관선무 강의 영화 '달마야 놀자'의 미술지도를 맡았던 관원 스님이 8월부터 3개월간 미국 LA 관음사 로메리카 불교대학에서 관선무와 불교선화강좌를 진행한다.



유럽불교 체험 성지순례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 동국대 교수는 8월 2~12일 연구원 회원과 일반 불자들이 유럽불교체험 성지순례를 떠난다.



임종석 의원 초청 희망법회 조계사청년회 정우식 회장은 8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을 초청, '통일이 희망이다' 주제로 희망법회를 봉행했다.



무량 스님이 '평화의 종' 형틀에 새겨진 문양을 살펴보고 있다. 종 아랫부분에는 세계 각국 어린이들이 손잡고 춤추는 그림이 담겨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2백여 나라 ‘평화 단어’ 종에 새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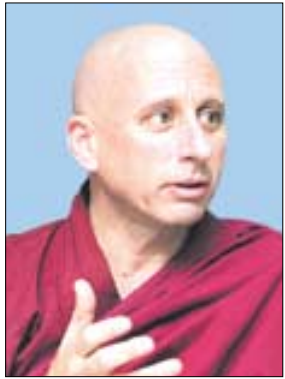
LA 태고사 ‘평화의 종’ 조성하는 무량 스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깥의 상징을 통해 내면세계를 알고 뒤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의 종을 통해 평화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식 사찰 태고사(Mountain Spirit Center)를 건립중인 무량 스님(사진)이 밝혔다. 경내에 설치할 ‘평화의 종’ 주조시식을 참관하기 위해서다. 7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스님은 “종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생각이 멈추고 소리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종소리를 통해 평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평화의 종은 신라시대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인 예밀레종을 기본 유형으로 하고 있다. 종의 표면에는 ‘평화’에 해당하는 2백여 개의 각 나라 언어들이 적혀있다. 제일 위쪽

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산스크리트어 등 네 가지 언어로 ‘어울려 함께하는 삶’ ‘세계 평화’ ‘인류 화합’ 등에 해당하는 말을 새기기도 했다. 무량 스님은 1959년 미국에서 태어나 예일대학을 다닌 중 송산 스님(서울 화계사 조실)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귀의했다. 송산 스님에게 ‘오직 할 뿐’이란 가르침을 받고 불법에 든 무량 스님이 ‘평화’를 화두로 든 까닭은 9·11 테러에 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때문에 데모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데모 또한 다른 방식의 싸움입니다. 다른 형식의 데모가 바로 평화의 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시험하기 위해 10년째 태고사 불사를 진행 중인 스님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절 지을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하고, 우물도 직접 팎으며, 통신도 모두 무선으로 하고 있다. 태고사는 현재 요사채와 대웅전이 마련된 상태다. 지난 5월 30일 기공식을 한 종각은 올 9월 19일 건립 10주년 기념식에 맞춰 마무리될 예정이다. 스님은 이 외에도 기숙사, 선방, 암자, 일주문, 사천왕문, 누각 등도 구상중이다. 또 사막부지인 태고사 주위에 땀을 건설해 숲을 조성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언제 완공되는가란 질문에 “당신이 같이 일하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유머로 답하는 무량 스님. 스님은 그동안의 수행과정을 낱알이 밝힌 자서전을 올 9월 초 도서출판 열림원에서 발간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달라이 라마의 마음공부’ 쓴 브릴랜드 스님 “한국 불자들이 열정에 감동”



에 담담하고 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전 자광사에서 법회를 연 스님은 “자신의 자비심을 기르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최근 서구에서는 ‘불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불자의 수적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수행을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인상에 대해 스님은 “한국불교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조직적인 승단과 열성적인 불자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인도 라토 수도원에는 티베트에서 망명한 100여 명의 스님이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한국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01) 91-8301-245-605. ratodrat@yahoo.co.in 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회원배가운동으로 신행증진 시킬터

법륜불자교수회 새 회장 조현춘 교수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불교 발전을 위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법륜불자교수회가 됐으면 합니다.”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주 남산 천룡사에서 열린 제33차 법륜불자교수회 하계수련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된 조현춘 교수(경북대학교 심리학과·사진)는 불자교수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교수회 운영을 다짐했다. “불교에 관심을 두고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잠정적 불자교수들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 신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불자로 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조 교수는 특히 회원 교수들이 각 재직사찰 신도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수 모범사례를 찾을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염불만일회, 법화사서 성지대회



민족통일과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발원하는 제 6차 전국염불만일회 ‘2004 7차년도 제주 법화사 성지대회’가 8월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법화사에서 열렸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가 주최하고 법화사(주지 시몽)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시몽 스님, 김재일 회장 등을 비롯해 예강한 용인시장, 시몽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가불자들이 염불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염불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앙코르와트 보물전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총무부장 무관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문화부장 성정 스님 등은 8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앙코르와트 보물전’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한국박물관협회 김중규 회장 등도 함께 했다.

삼전복지관, ‘맘짱! 친구사랑’ 캠프



서울 삼전종합복지관(관장 선재)은 7월 30일~8월 1일 경기 양주 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에서 청소년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맘짱! 친구사랑’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천연염색 체험, 포스트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갈등에 찌들려 사는 당신 - 무심(無心)으로 떠나라!

명사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無心>! -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를 드립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빈디엔루니스 베스트셀러!

각계인사들이 추천한 2004년 최고의 명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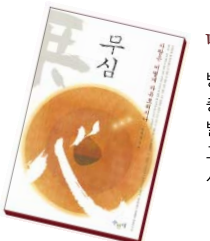
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명상도 선배를 향해 가는 수행의 일부일지언정, 부처님의 지혜를 좀 더 쉬운 언어로 세상에 알리려는 자의 노력은 반가운 동반자를 만난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 백창기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대인(大人)은 라이벌을 오히려 키운다 “금영이도 무심을 익혔더라면 정권을 키웠을텐데.” ‘대인(大人)은 라이벌을 오히려 키운다’는 대목을 읽고, 조목조목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다. - 홍리나 (연기자)

누구에게나 버겁지 않은 '진리' '무심'은 누구에게나 버겁지 않은 '진실'을 이기고 있다. 내일 아침엔 내게 만드는 노래에도, 내게 진행되는 방송에도 이런 인간적인 '무심'이 깃들 것 같다. - 작곡가방송인 이호섭

“하리에 대신 걱정해주는 주머니를 차고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아라” - (SBS-TV) '오픈 스튜디오'의 교재로 채택

근심걱정을 잊고 무심으로 사는 법!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흔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강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지치 않고 생생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가듯 죽는 방법!



명사마음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총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이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명사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NAVER 검색창에 [무심]을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무심을 읽어보세요 : www.Mymusim.com

동원수선재 TEL 02)391-9315 FAX 02)391-9314